

*성함 : 김OO

*합격환 시험 : 2019년 지방직 일반행정직(경기도 파주시)

1. 시험 지원 동기

회사를 다니다가 좀 더 보람있고, 평생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다른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부지런히, 하루에 더 많은 시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국어: 국어는 실감을 들으면서 기출문제집이나 문법문제집을 병행하여 풀었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문법을 익히는 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학은 평소에 소설의 줄거리를 읽어 놓으면 문제로 직면했을 때 적용하기가 쉬웠습니다. 고전 문학의 경우는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왔을 때 제대로 공부해 두려고 했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져서는 동형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문학, 비문학, 문법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어: 사실 저에게 영어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고, 그럴수록 절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영어는 누가 가장 오래 앉아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고 해서 매일 기본으로 4시간 이상을 영어공부를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 어느 날 독해가 읽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독해를 하다 보니 어렵던 독해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어도 외웠던 부분을 일주일 간격으로 또 보고 다시 보고 반복하니 기억하기가 쉬웠습니다. 영어는 다른 방법이 없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 한국사는 물론 세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압축해서 정리한 노트보다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읽고, 외우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본서를 활용해서 공부하니 나중에서는 기본서의 어느 부분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게 되고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보충했습니다. 문제에서 다룬 부분이나 틀린 부분은 따로 그 부분의 내용을 찾아서 자세하게 외우고 공부했습니다.

행정학: 행정학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몇 회독을 해도 잊어버리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 다시 처음부터 봐야 했습니다. 행정학은 단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나온 부분의 단원을 돌아가서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단원과 그 내용이 생각나게 돼서 문제를 풀 때 기억해 내기가 쉬웠습니다.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공부하니 행정학에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 사회는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다보면 유형이나 많이 나오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세히 외워야 하는 부분은 기본서로 돌아가 따로 공부했습니다. 사회는 문제를 통해 유형에 익숙해지면서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종로스파르타 장점

종로 스파르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습실이 공부하기에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의 자습실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운영에 있어서도 담당하는 분이 계셔서 관리 받고 있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왜 공부원이 되려고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결심했던 때를 떠올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거나 지치면 하루는 아무생각도 하지 않고 푹 쉬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휴식이 없다면 빨리 지치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휴식을 적절히 주어 공부의 능률을 높이려 했습니다.

5. 면접시험 준비 방법

학원에서 면접 수업 두 번을 듣고, 혼자 면접 공부를 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보고 노트에 내용을 완전히 써보고 면접이라 생각하고 크게 연습했습니다. 면접은 스스로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디 보다는 저는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을 찾아보고 시정에 관한 내용도 써보고 말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6.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 보다도 더 마음 쓰며 합격 소식을 기다리셨을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7.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묵묵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성적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좌절보다는 자신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주세요. 하다보면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믿으세요!